

- 주요 뉴스: 美소비 위축 및 인플레이션 우려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감 확산
 - 프랑스스페인 3월 인플레이션 예상치 하회. ECB 금리인하 기대 강화
 - EU 집행위원회, 미국 관세 부과 대응 위해 타협안 제시 계획
 - 영국, 소매판매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높은 저축률로 인해 소비 부진 우려 잔존
- 국제금융시장: 미국 경기둔화, 인플레이션 우려, 무역 분쟁 등이 영향
 - 주가 하락[-2.0%], 달러화 약세[-0.3%], 금리 하락[-11bp]
 - 주가: 미국 S&P500지수는 무역 분쟁,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연속 하락
유로 Stoxx600지수도 미국 경기지표 부진으로 0.8% 하락 마감
 - 환율: 달러화지수는 무역갈등 격화 및 미국 성장부진에 대한 경계감으로 하락
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+0.3%, +0.8% 상승
 - 금리: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경기둔화 우려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확대로 하락
독일은 ECB 금리인하 기대감에 4bp 하락

※ 뉴욕 1M NDF 증가 1468.0원(스왑포인트 감안 시 1470.4원, 0.03% 상승). 한국 CDS 상승

		3/28일	3/27일	전일대비			3/28일	3/27일	전일대비
주가	미국	5,580.9	5,693.3	-1.97%	국채 금리 10y	미국	4.25%	4.36%	-11bp
	유럽	542.10	546.31	-0.77%		독일	2.73%	2.77%	-4bp
	중국	3,351.3	3,373.7	-0.67%		영국	4.69%	4.78%	-9bp
	일본	37,120	37,800	-1.80%	CDS 5y	한국	37bp	36bp	+1bp
	한국	2,558.0	2,607.2	-1.89%		중국	51bp	51bp	+0bp
환율	달러지수	104.01	104.34	-0.31%	위험 지표	EMBI+	389	379	+10bp
	유로화	1.0828	1.0801	+0.25%		VIX	21.65	18.69	+15.84%
	엔화	149.84	151.05	+0.80%		WTI유	69.36	69.92	-0.80%
	위안화	7.2626	7.2623	-0.00%	원자재	구리	513.0	509.8	+0.64%
	원화	1,469.9	1,464.7	-0.36%		금	3,085.1	3,057.3	+0.91%

주: 주가는 미국 S&P 500, 유럽 Stoxx 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■ 미국 소비 위축 및 인플레이션 우려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감 확산

- 미국 2월 PCE가격지수는 전월비 0.3%, 전년동월비 2.5% 상승하며 시장 전망치에 부합했으나, 식품·에너지 항목을 제외한 근원PCE 가격지수는 전월비 0.4%, 전년동월비 2.8% 상승하며 시장 예상치를 상회
- 한편, 2월 개인소비지출은 전월비 0.4% 증가하며 1월(-0.2%)의 감소 흐름에서 소폭 반등했으나, 시장 예상치(0.5%)에는 못 미치는 수준. 전년 동월 대비로는 2.5% 상승해 1월과 동일한 증가율을 기록
- 미시간대 3월 소비자심리지수 확정치는 57로 하향 조정되며 예비치(57.9)를 하회. 장기 기대인플레이션은 예비치 3.9%에서 4.1%로, 단기 기대인플레이션도 4.9%에서 5.0%로 상향. 금번 소비자심리 악화는 소득, 정치 성향 등을 불문하고 광범위하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시장불안을 더욱 자극
- 최근 발표된 부진한 미국 경제지표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부추기고 있으며, 트럼프 행정부의 공격적인 관세 정책 및 재정지출 축소 계획은 높은 인플레이션과 소비 위축을 더욱 악화될 소지(ING)
-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는 올해 연준의 두 차례 추가 금리인하 전망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면서도, 최근 인플레이션 진정 속도가 정체된 점은 해당 전망에 대한 확신을 낮추는 요인이라고 언급
- 반면, 콜린스 보스턴 연은 총재는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보면서도, 그 영향은 일시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■ 프랑스·스페인 3월 인플레이션 예상치 하회. ECB 추가 금리인하 기대 강화

- 3월 프랑스 인플레이션(yoy)은 0.9%로 전월과 동일하게 유지. 스페인 인플레이션의 경우 전월 2.9%에서 2.2%로 크게 둔화하며 ECB 목표치에 근접
- 다만, 나겔 ECB 정책위원은 금번 인플레이션 둔화에 대해 고무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, 목표치에 가까워질수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시장의 지나친 낙관론을 경계

■ EU 집행위원회, 미국 관세 부과 대응 위해 타협안 제시 계획

- EU 집행위원회는 미국 관세 부과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전달받은 가운데, 이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과의 협상 범위 및 조건 등을 정리하기 위한 작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도. 잠재적 협상 항목으로 EU 측의 관세 인하, 미국과의 상호 투자 확대, 일부 규제 완화 등이 포함될 가능성

■ 영국, 소매판매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높은 저축률로 인해 소비 부진 우려 잔존

- 2월 소매판매는 전월(+1.4%)에 이어 1.0% 증가하며 시장 예상치(-0.5%)를 크게 웃돌았고, 작년 GDP성장률도 1.1%로 상향 확정되며 잠정치(0.9%)를 상회
- 한편, 작년 4분기 가계 저축률이 전분기 10.3%에서 12%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며 소비 둔화 우려가 부각. 이에 일각에서 영란은행이 저축률을 낮추고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가 제기

■ 미국-캐나다 정상, 무역 갈등 관련 첫 논의. 긴장 완화 가능성 시사

-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 총리와의 첫 통화 이후 매우 생산적이었다고 평가하며, 캐나다 총선 직후 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언급
- 캐나다 총리실 역시 이번 통화가 건설적이었다고 평가하면서도, 아직 협상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. 아울러 미국이 4월 2일 예정된 관세 부과 조치를 강행할 경우, 보복 관세를 시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

■ 이스라엘, 휴전 합의 이후 처음으로 베이루트 공습 단행. 중동 갈등 격화 조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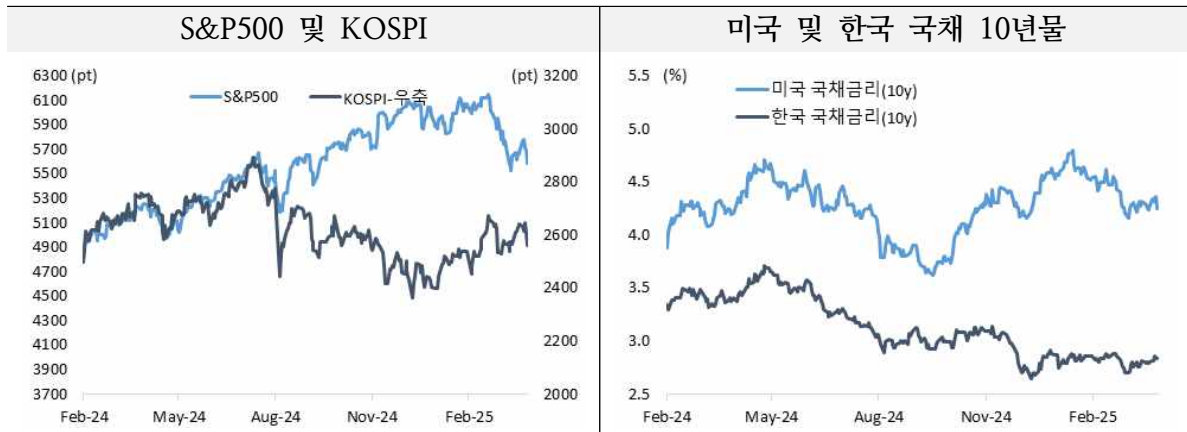
- 네타냐후 총리는 이번 공격이 광범위한 군사 작전의 시작이 아닌 레바논에서 발사된 로켓에 대한 보복 차원의 공습이라고 표명하며, 위협 발생 시 휴전 조건하에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언급

주요 경제지표

■ 다음주 주요 경제 이벤트(3/31~4/4일, 현지시각 기준)

- 미국 3월 ISM 제조업 PMI(4/1일), 2월 무역수지(4/3일), 3월 실업률(4/4일)
- 유로존 2월 실업률(4/1일), 3월 인플레이션(4/1일),
- ECB 통화정책회의(4/3일), 파월 연준 총재(4/4일)·월러 연준 이사(4/4일) 연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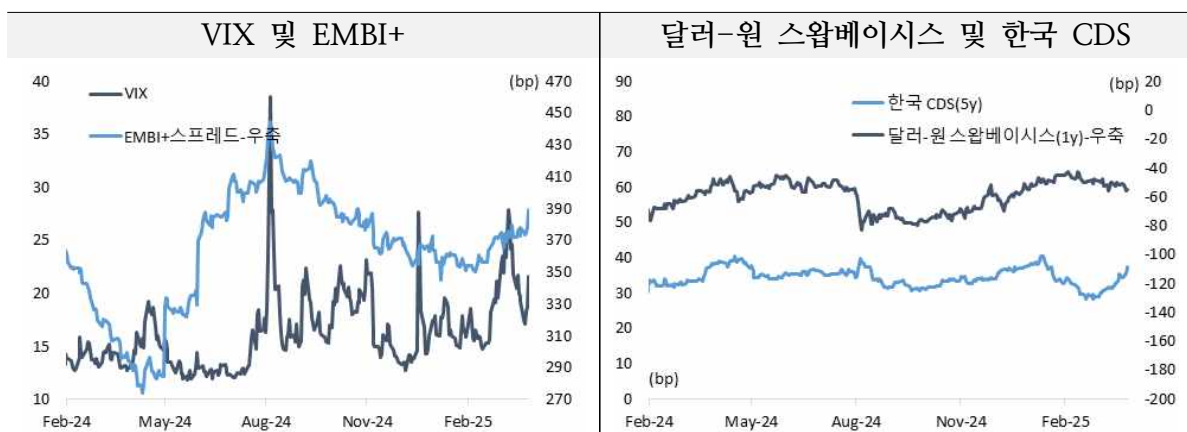
금융시장 주요 지표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245, E-mail swshin@kcif.or.kr